

해 외 출 장 보 고 서

1. 출장개요

- **출장목적** :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디딤돌을 놓고자 경기도가 필리핀에서 개최하는 “2019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 국제대회”에 「남북 경제·교류협력 라운드 테이블 I」과 「국제 대회 본행사(포럼 및 토론회)」 등의 패널로 참석하여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함
- **출장기간** : 2019. 7. 24.(수)~2019. 7. 27.(토), 3박 4일
- **출장지역** : 필리핀 마닐라
- **출 장 자** : 이한주 원장

2. 출장 일정

날짜	출발지	도착지	시간	주요 내용
7.24 (수)	인천	필리핀 마닐라	18:55 22:05 23:00	인천 국제공항(ICN) 출발 마닐라국제공항(MNL) 도착 호텔 숙박 (마닐라 콘래드호텔)
7.25 (목)			10:00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제·교류협력 관계자 등 사전 미팅
			14:00	남북 사전 실무협의 (경기도-북측 대표단)
			16:00	【 남북 현장간담회 】 남북 경제·교류협력 라운드 테이블 I 참석
			18:00	【 환영만찬 】 강제동원 진상규명 경과사례 공유, 네트워크 형성 논의 등
7.26 (금)			9:00	【 현장방문 】
			12:30	필리핀 재향 군인 박물관, 국립묘지 등
			13:00 20:30	【 국제대회 】 행사 참석 포럼 및 토론회
7.27 (토)	마닐라	인천	9:00 12:15 16:55	공항 이동 마닐라국제공항(MNL) 출발 인천국제공항(ICN) 도착

3. 출장 주요 내용 및 결과

1) 2019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 일시/장소 : 19. 7. 25.(목) ~ 7. 27.(토) / 필리핀 마닐라 콘래드 호텔

○ 주최/주관 : 경기도, (사)아태평화교류협회 / (사)아태평화교류협회

○ 참가대상

- 국내 : 경기도 평화부지사, 평화협력국장,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남북평화협력 및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관계자 등
- 국외 : 북측 대표단(조선아태평화위 리종혁 부위원장 등 6명), 필리핀, 일본, 중국, 호주, 카자흐스탄, 태국, 몽골, 인도네시아, 프랑스 등

○ 대회구성

7.25.(목)	7.26.(금)	7.27.(토)
- 라운드 테이블 - 환영만찬	- 국제대회 본행사 (포럼 및 토론회)	- 참가자 출국

○ 포럼 및 토론회

시 간		분	주요내용	비 고
13:00	15:00	120'	• 리셉션(60') 및 개회식(60') - 환영사, 축사 및 기념촬영	휴식10'
15:00	17:00	120'	• 세션 1 : 강제 동원의 아픔, 그리고 평화 - 남한, 북한, 일본 주제발표	휴식10'
17:00	17:10	10'	• 일본군 성노예 피해 증언 영상	
17:10	18:10	60'	• 세션 2 : 일본군 성노예 피해 치유 - 남한, 북한, 일본, 필리핀 등 주제발표	
18:10	18:30	20'	• 공동발표문 선언	
18:30	20:30	120'	• 만찬 및 전통 공연	

2) 경기도-북측 교류협력 라운드 테이블

- 일시 : 19. 7. 25.(목) 16:00~17:30
- 장소 : 마닐라콘래드호텔 내 태프트볼룸 I
- 참석자 : 경기도, 도의회, 공공기관, 교류협력 관계자, 북측대표단 등
- 주요내용 : 경기도-북한간 경제협력 및 교류협력 사업제안 및 토론
- 남북교류협력사업 제안 내용 (경기연구원)

① 국제학술대회(2019 「DMZ 포럼」) 참여 요청

-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 의뢰를 받아 국제학술회의 형태로 2019 「DMZ 포럼」을 개최 (2019. 9. 19.(목)~9. 20.(금), 2일간(前日행사 9. 18.(수))
- 경기연구원은 북측이 2019 「DMZ 포럼」에서 기조연설자, 특별강연자, 주제발표자, 토론자 등으로 참여하기를 희망

② 남북 연구기관의 학술교류협력 추진

-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 정책을 연구하는 종합연구기관으로서 북측의 상응하는 (대학)연구 기관과의 학술교류협력을 적극정으로 요청
- 경기연구원의 학술교류협력 대상 북측 (대학)연구기관은 북측이 추천



3) 국제대회 환영만찬 및 사전교류

○ 일시 : 19. 7. 25.(목) 18:00~20:00

○ 주요내용 : 강제동원 진상규명 경과사례 공유, 네트워크 형성 논의 등

4) 현장방문

○ 일시 : 19. 7. 26.(금) 9:00~12:30

○ 방문장소 : 필리핀 재향 군인 박물관, 국립묘지 등

○ 방문내용

- 필리핀 재향 군인 박물관 :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위한 박물관, 제2차 세계대전 저항운동 기록 서적, 회고록, 사무라이 권총과 기타 전쟁 기념품 등 전시
- 국립묘지(Heroes Cemetery) : 제2차 세계대전 필리핀 전쟁 및 필리핀 해방과정에서 숨진 군인들과 필리핀 대통령, 국가영웅, 애국자, 국립 예술가와 국립 과학자들의 공식 매장지

5) 국제대회 본행사 개최

○ 주요 발표 내용

- **경기도지사**(평화부지사 대독, 축사) : 한미정상의 DMZ 방문,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만남, 북미 정상의 남측자유의 집 회담은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이는 대립을 넘어 평화의 시대로 향하는 역사의 이정표라고 확신하며, 이번 국제대회가 아시아태평양 전체의 평화와 번영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
- **리종혁 부위원장**(‘강제동원의 아픔 그리고 평화’ 세션, 발표) : 일본의 남조선 수출규제 조치는 단순한 경제보복이 아니라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불복이며, 이는 과거 죄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조선 식민지 지배의 향수를 자극해 전쟁 가능한 국가를 실현하고 군사대국화로 가기 위한 속심의 발로임. 최근 조선반도의 평화번영의 새 기류가 태동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 세계평화를 위한 매우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
- **하토야마 유키오 前 일본 총리**(‘강제동원의 아픔 그리고 평화’ 세션, 영상) : 아시아 태평양에서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한반도에 평화 구축의 기운이 진전되고 있어 다행, 이번 대회가 그 돌파구가 되길 기대

- **나시모토 노미야 재단 이사장**(‘강제동원의 아픔 그리고 평화’ 세션, 발표) : 일본 정부는 역사 앞에, 피해를 본 국가와 국민들 앞에 진솔하게 사죄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함. 일본이 과거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많은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준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
-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일본군 성노예 피해 치유’ 세션, 발표) :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해 1990년 초부터 남북, 아시아 피해국, 미국과 유럽 등 세계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일본에게 문제해결을 요구. 일본정부의 불법적 식민 지배와 전쟁범죄 인정,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공식사죄 및 법적배상, 강제징용 피해자 사죄 및 법적책임 이행 등 요구. 국제사회의 전시 성폭력 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일본군 성노예 범죄 진상조사, 일본정부에 대한 영구적 해결책 모색과 이행 요구, 제2차 세계대전 연합군 정부에 일본군성노예제 관련 모든 자료 공개 요구

○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증언 내용

- **이용수 할머니**(남측) :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당시 상황 증언, 2015년 8월 한일정부 합의 부당함 역설, “저는 오늘도 그랬고, 그제께도 그랬고, 내일도 아베를 세계에 고발, 오늘 여기서도 세계법에 따라 고발”하며, “일본은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배상”해야 함을 강조
- **에스텔리타 디 할머니**(필리핀) : 일본 정부로부터 정식사과 필요

○ ‘공동발표문’ 주요내용

- 일본 강력 규탄 및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위한 공동 노력 합의
- 일본에 의해 자행된 강제동원 및 납치연행, 일본군 성노예 범죄 등 전쟁 범죄에 대한 일본당국의 직접적인 인정과 사죄, 배상 노력
- 아시아태평양지역 나라에서 감행된 일제의 전쟁범죄에 대한 진상 조사 및 실태를 널리 알리기 위한 활동 적극 전개, 전쟁범죄 자료의 유네스코 등록을 통해 국제적 여론화 추진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일본의 무역보복을 ‘과거죄악 책임 회피 및 군사대국화 속심의 발로’로 규정, 저지위한 모든 활동 전개
- 공동 설립 재단으로 제2차 세계대전과 태평양전쟁 당시 강제동원된 희생자의 유해발굴 및 유골봉환사업 진행, 다양한 교류협력사업 전개 등

○ 현장사진



6) 주요성과

○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 기틀 마련

- 남북교착국면에 남북 공동참여 국제대회 개최로 지속적인 ‘소통의 창’ 마련
- 아울러, 경기도-북측 간 민간분야 남북관계 진전 방법에 대한 논의

○ 남북교류협력 분야 다각화

- 직접적인 물적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적교류’ 등 분야 협력확대를 통한 교류활성화 계기 마련

○ 평화 이니셔티브 확보

-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동원 및 납치연행, 일본군 성노예 범죄를 규탄하는 11개국 참가자들의 공동발표문 선언
-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태평양의 평화교류에 기여함으로써 평화통일의 중책지역으로서 경기도 위상 제고